

이현세 초기 작품이 보여주는 혁신성



박인하(만화평론가, 서울웹툰아카데미)



<저 강은 알고 있다>(1978)

<최후의 곡예사>(1979)

<태풍>, <시모노세키의 까치>(1979)

<오오사카의 한국인>, <그라운드외의 우정>, <그라운드에 부는 바람>, <그라운드외의 거인들>, <그라운드외의 외로운 별>(1980)

“공포의 외인구단’이 완간된 때가 1983년, 내 나이 스물아홉 살 때다. 그 작품이 큰 인기를 끌면서 출판사들이 내 과거 원고를 전부 모아 출판하겠다고 나섰다. 이현세 이름만 달면 팔려나가던 때라 제법 큰돈도 제시했다. 순간 마음이 흔들리더라. 나는 알고 있다. 그 작품들이 얼마나 낮 뜨거운 수준인지. 그런데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욕심이 생기는 거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초기 원고들을 싹 태워버렸다. 당시엔 CD 같은 별도 저장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를 태우면 영영 끝이었다. 그렇게 초기작이 다 없어졌다.” 송화선(2019.02) 까치 탄생 40년 만화가 이현세, 신동아 2월호(713호), p.450-4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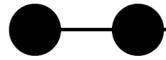
<최후의 곡예사>에서 이후 붓 터치로 찍은 까치 머리의 ‘오혜성’의 원형격인 삐죽 솟은 머리의 반항아 캐릭터 ‘센’이 등장했다. <시모노세키의 까치>에서는 주인공 오혜성을 ‘까치머리’라는 별칭으로 부른다. 붓 터치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깡마른 몸매는 이후 오혜성으로 계속 이어진다.



<까치의 제5계절>(1981) 6권

1981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6권으로 완간한 <까치의 제5계절>(화성사)은 완전히 소년의 티를 벗은 청년 오혜성이 등장하는 작품이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의 아들을 기른다는 미우라 아야코 소설 <빙점>의 테마를 기반으로 기존 만화와 완전히 다른 격렬한 파토스를 보여준다. 아들 훈이를 죽인 범인의 아들을 보육원에서 데려다 키운 오장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를 한 범인을 자존심 때문에 몰아붙여 결국 아들을 죽게 했다고 자책하는 오장대. 자수한 범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범인의 부인도 추운 겨울에 사죄를 하겠다고 찾아왔다가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난다. 친구 도협이 운영하는 보육원을 찾아 범인의 아들을 자신이 데려가 아무런 차별없이 키우겠다고 다짐했지만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오혜성에게 잘해주지 못한다. 혜성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신문을 돌리다 빗속에 쓰러진 엄지를 업고 집에 데려다 준다. 엄지네 집에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다. 잠결에 엄지네 부모가 나누는 혜성이 보육원에서 데려온 아이라 빗속에 신문을 돌리게 하고, 동탁은 친아들이라 집에 있게 한다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다. 혜성은 그 뒤로 제일 좋아했던 야구까지 동생에게 양보하면서 산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엇 하나 양보하지 않는 반항아가 된다. 한편, 엄지는 빗속에 쓰러진 자신을 구해준 혜성이 자기 때문에 힘겨운 운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안쓰럽게 지켜보고, 소년의 상처와 운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현세는 주인공 오혜성을 지금까지와 달리 더 처절한 운명 속으로 밀어 넣는다.

이후 <까치의 제5계절>이 보여준 이현세 만화의 DNA는 혜성, 동탁, 엄지, 두산이라는 프랜차이즈 스타 캐릭터로, 강렬한 펜 터치가 지닌 힘있는 작화로, 나를 내던지는 자극적 낭만성으로 나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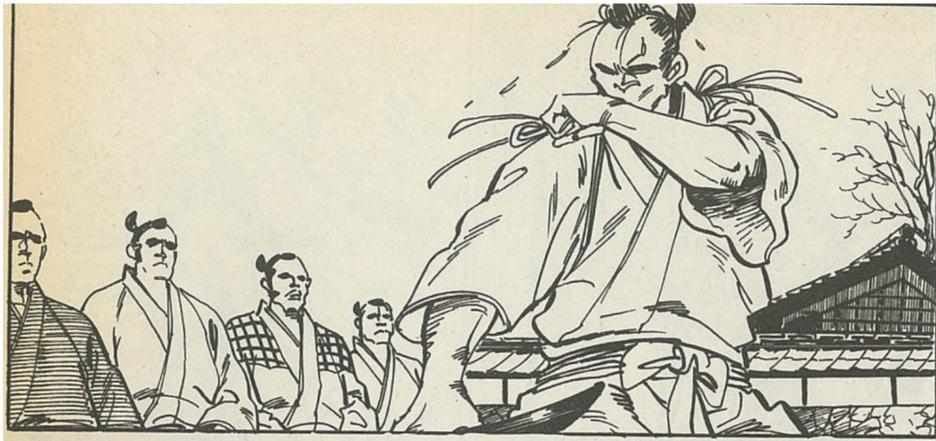


<국경의 갈가마귀>(1982)

“<국경의 갈가마귀>는 내가 가장 신이나서 한 작품이다. 스토리와 그림 전체를 혼자서 다 그리는데 보름이 안 걸렸을 정도다. 하루에 한 세 시간 정도 자고 밥 먹는 시간 십여 분 썩을 제외하고는 그림에만 매달렸다. 만화 여섯 권을 그리는 데 세 달이 채 안 걸렸다.” 이현세(2006) <신화가 된 만화가>, 도서출판 예문, p.95.

1980년대 초반 이현세 시대극화는 기존 시대극화와 비교해 낭만주의적인 캐릭터와 파괴적인 마무리로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최후의 곡예사(곡예사)>(1979), <시모노세키의 까치(격정의 까치머리)>(1981), <까치의 제5계절>(1981)을 거쳐 강렬한 파토스를 지닌 캐릭터 ‘까치 오혜성’을 창조한 이현세는 <국경의 갈가마귀>(1982)를 통해 “이성보다 감성에 호소하고, 명확한 선묘적 데생보다는 동적 형태나 강렬한 명암의 대비를 선호하고, 과장이나 불균형의 운동감을 보여”주었다.

<최후의 곡예사>, <시모노세키의 까치>, <까치의 제5계절>의 주인공들은 내면의 죄의식이 파토스를 끌어낸다. 하지만 조선인 마을에 사는 순진한 소년인 까막이는 앞선 작품의 주인공들과 달리 죄의식이 없다. 죄 없는 까막이가 마적에게 붙잡혀 팔려가고, 탈출하고, 낯선 땅에 도착한다. 그리고 벽과 벽 사이에 3년 동안 숨어지낸다. 그 과정에서 뼈만 남고, 머리는 모두 빠진다. 기이하게 변한 외형으로 인해 까막이는 ‘괴물성(monstrosity)’을 갖게 된다.





한스 홀바인(Hans holbein)의 <무덤 속의 죽은 그리스도 시체(The body of the dead Christ in the tomb)>(1520-1522)

괴물성은 그 자체로 정상적인 존재와 다른 위험한 존재를 상징한다. 이전 작품에서 ‘까치’가 내면의 갈등을 지닌 인물이었다면, ‘까막이’는 외형부터 괴물 그 자체다. 죄의식이 없던 까막이가 괴물성을 획득하며 복수의 파토스를 갖게 된다. 까막이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누이를 납치한 중국 비적의 우두머리 칭조우 대인의 아들 슈우와 싸운다. 복수에 성공한 까막이는 자신의 아이를 낳은 ‘쓰지’마저 버리고 스스로 청나라의 군대에 뛰어들며 만화가 끝난다.

순수하고 착하기만 한 까막이는 복수를 위해 괴물이 되었다. 이런 격렬한 변화 속에서 독자는 ‘약한 것은 죄’라는 이현세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까막이는 다른 항일만화와 다르게 나라의 가치도 절대적이지 않다. “자기도 있고 나라도 있는 것. 하물며 나라의 은덕이라고는 손톱만큼도 받아보지 못한 나다.”



시라토 산페이(白土三平)의 <적목(赤目)>(1961)

“만화를 왜 그릴까? 그리고 만화란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려야 할까? 또한 무슨 소재로 어떤 스타일로 만화를 그려야 할까? 이런 만화에 대한 철학은 일본 작가 시라토 산페이(白土三平)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을 것이다.(중략) 내가 산페이에 주목한 것은 <적목(赤目)>이라는 만화를 보고 나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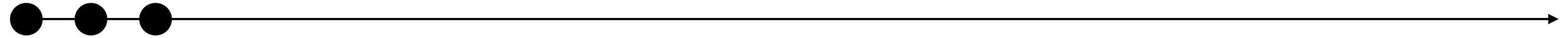
시라토 산페이의 <적목>은 농민들의 계급투쟁이지만 마츠조의 입장에서는 ‘괴물이 되서 복수를 한다’는 이야기다. <국경의 갈가마귀>, <활>에서 ‘괴물성’이 발현되는 패턴도 ‘괴물이 되서 복수를 한다’이다. ‘복수테마’가 완전히 낫선 테마는 아니지만, 완전한 악행에 맞서 싸우기 위해 자신을 내버린 주인공이나, 그런 주인공만 좋아하는 여성 등의 인물은 이전 만화에서 보기 힘든 캐릭터였다. 캐릭터의 괴물성은 1988년도 시대극화인 <사자여 새벽을 노래하라>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전환된다. <사자여 새벽을 노래하라>는 일제 강점기 말 징병으로 동원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다. 여러 캐릭터 중에서 오혜성에 대해 “바위라면 바위고 칼이라면 칼날이다. 그러나 그의 곧고 강함은 자신의 생명유지조차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만들곤 한다. 많은 여인이 그를 쫓아 자신을 버리려고 하지만 그는 언제나 죽음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곧 또하나의 비극인지도 모른다.”라고 설명한다. <국경의 갈가마귀>와 <활>이 지닌 괴물성이 내외부에 잠재화된 완벽한 영웅성으로 전환된다. 홀로 고독한 괴물같은 영웅은 이후 <남벌>에서 총과 칼에 맞아 중상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 현해탄을 건너는 오혜성으로 확장된다.



<공포의 외인구단>(1983)

야구만화는 이현세 만화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공식적인 작품목록에서는 빠져있지만 1980년 화성사에서 <그라운드의 우정>, <그라운드에 부는 바람>, <그라운드의 거인들>, <그라운드의 외로운 별>로 이어지는 ‘그라운드 시리즈’를 출간했다. 당시 정부의 심의 규정으로 한 타이틀은 전,후 두 권으로만 출간될 수 있어서 유사한 제목의 시리즈가 되었다. 혜성, 동탁, 엄지, 두산과 같은 이현세 캐릭터의 원형이 등장하는 <까치의 제5계절>(1981)은 소재로 고교야구를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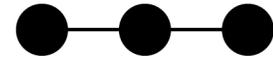
또한 이후 1980년대 이현세 스포츠 만화에서 다양하게 변주되는 부성과 모성을 보여 준다. <까치의 제5계절>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의 아들을 양자로 맞아 들였지만 끝내 아들을 인정하지 못한 완전하지 못한 부성과 아들의 정체를 알고 이내 사랑을 거둬버리는 완전하지 못한 모성이 등장한다. 완전하지 못한 부성과 모성의 빈자리를 결국 누군가의 희생으로 채워야하는 스토리텔링이 제시된다.



<공포의 외인구단>(1983)

제목	연도	스포츠소재	주요 테마
까치의 제5계절	1981	고교야구	불완전한 부성/모성, 엄지를 통한 대리모성, 동탁의 희생
까치의 풋사과	1982	고교야구	신분 속이기
까치의 푸른능금	1982	고교아이스하키	신분 속이기, 불완전한 부성/모성, 주인공의 트라우마
떠돌이 까치	1983	중학야구	불완전한 부성.모성, 모성에 대한 그리움, 주인공의 트라우마
날아라 까치야	1983	프로권투	신분 속이기, 불완전한 부성/모성, 나쓰애를 통한 대리모성
공포의 외인구단	1983	프로야구	불완전한 부성/모성, 엄지를 통한 대리모성, 혜성의 희생
지옥의 링	1985	프로권투	불완전한 부성/모성, 엄지에게 향하는 대리부성, 혜성의 희생

1983년 9월 10일 <공포의 외인구단> 1부가 화성사에서 출간되었다. <공포의 외인구단>에 도달하기 전후 스포츠 만화를 살펴보았다. 전체 작품에서 ‘스포츠’의 축과 함께 <까치의 제5계절> 제시한 불완전한 부성/모성과 여자 주인공을 통한 대리모성, 최후의 희생으로 인한 드라마와 스포츠의 통합이 반복된다.



<공포의 외인구단>(1983)

“한국은 건국 후 엘리트로부터 민중으로(1980년대), 민중에서 시민으로(1990년대)라는 변화를 경험했고 (중략) 1980년대 들어 한국에서는 민중이라는 개념이 사회의 전면에 등장하여 노동운동이나 진보적인 세계관과 합체하여 사회 변혁의 중심 주체가 되었다. 격렬한 민주화운동은 유교 사대부의 저항의식과 그 의식의 영향을 받은 민중의 변혁주체성이 합쳐져 완수되었다.” 오구라 기조, 이재우 옮김 (2022) <한국인의 행동원리>, 마르코폴로, p.4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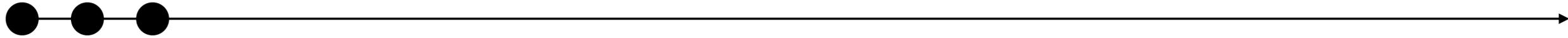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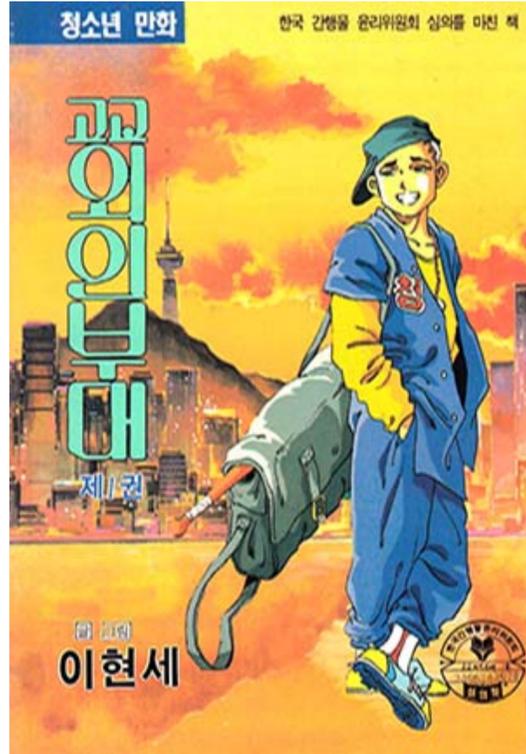
1980년대 이현세의 스포츠 만화는 기존 스포츠 만화와 달리 스포츠와 동시에 드라마를 진행시키며 불완전한 부성과 모성을 보여준다. 아버지를 극복하거나 어머니의 사랑으로 해소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애초에 부성과 모성이 불완전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성과 모성이 불완전한 자리에 여자 주인공이 대리모성을 보여준다. 1980년대는 오구라 기조의 평가를 빌면 건국후 엘리트로부터 민중으로 전환되는 시기였다. 건국후 근대화를 주도하던 엘리트가 기존 ‘아버지상’이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며 한국은 새롭게 들어선 제5공화국 군사정권이라는 ‘아버지’를 인정할 수 없었다. 다양한 요구가 분출했다. 아버지를 부정해야 어른들에게 만화가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이현세 만화가 준 충격은 부성의 부정이었다.

완전하지 못한 부성을 그리는 방식으로 부성을 부정한 뒤 왜 모성의 자리에 대리모성을 놓았을까? 부성과 모성도 함께 부정한 까닭은 무엇일까? 부성이 부정되고 모성이 강조되면 전근대적인 모성신화가 탄생한다. 다시 신파로 회기한다. 주체로 나가야되는 주인공이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어버린다. 그러니 모성을 어머니가 아닌 연인에게 부여한다. 작품의 표면에서는 사랑의 문제이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는 (대리)모성을 갈망하는 소년이 울고 있다. 소년을 버리고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의를 거쳐야 한다. 많은 스포츠 만화에서 연습을 통해 마구를 만드는 것에 도달하는 판타지를 구현한다. 하지만 이현세 스포츠 만화는 마구를 던지지 않는다. 희생의 결과가 마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스포츠와 함께 하는 불완전한 부성과 모성에 절망한 주인공은 엄지를 통해 대리모성을 느끼며 엄지를 사랑하고 마침내 자신의 희생을 통해 모든 것을 회복시키게 된다. 장엄한 회복의 장엄한 서사를 부성과 모성을 거부하는 1980년대 독자는 만화방을 찾으며 읽고 또 읽었다. 그렇게 이현세 만화의 신화 <공포의 외인구단>으로 연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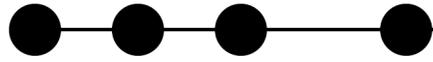
다양한 혁신의 모색



<떠돌이 까치>(1983)
<고교외인부대>(1983)



1980년대부터 시작된 주요 만화는 크게 스포츠, 시대극화, 액션느와르(스릴러), SF 장르로 요약된다. 1980년대 초기 이현세 만화는 주로 스포츠 만화를 중심으로 시대극화가 인기를 끌었다. 스포츠 만화와 시대극화는 1980년대 어린이 잡지와 어린이 만화잡지에도 연재되며 이현세 만화를 확산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공포의 외인구단>은 <어깨동무> 1983년2월호부터 1984년 10월호에 연재된 <떠돌이 까치>와 <만화보물섬>에 1983년 6월호부터 1985년 1월호까지 연재된 <고교외인부대>로 연계된다. 자연스럽게 독자를 확장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흔히 스포츠 만화에서 소재로 활용하는 야구 뿐 아니라 아이스하키, 씨름, 롤러스케이트, 여자배구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를 다루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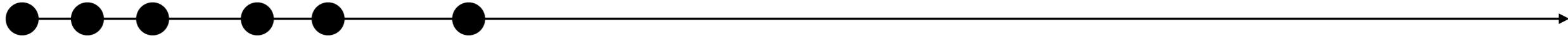


<며느리 밥풀꽃에 대한 보고서>(1987)



1화에서 주인공 순이가 돼지 사료를 주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며느리 밥풀꽃에 대한 보고서>는 여성 캐릭터가 주연을 맡은 사회파 느와르 혹은 사회파 스릴러였다. 거친 남자 캐릭터들을 그린 힘있는 선과 달라진 얇고 섬세한 선부터 사회적 이슈를 작품으로 끌어온 스토리텔링까지 당대에 보기 힘든 작품이었다. 모두 이현세의 변신에 놀라워했다. 프랜차이즈 스타 캐릭터를 배제한 채 인신매매, 노동조합, 노조붕괴 시도, 위장폐업과 같은 사회적 이슈를 정면에서 담았다. 당대 가장 사회적인 만화였다.

“<며느리 밥풀꽃에 대한 보고서>는 보는 이들의 눈에 따라 각각 다른 지점들이 확대된다. 인신매매, 노동조합운동, 노조회유, 위장폐업과 같은 당대의 사회적 이슈들이 먼저 보일 수 있다.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한 소녀가 공장에서 일하려다가 사창가에 팔려간다는 자극적인 대목이 먼저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며느리 밥풀꽃에 대한 보고서>는 사회적 이슈를 담아낸 리얼리즘 작품도 아니고, 1970년대풍 호스티스물도 아니다. 이 작품은 <국경의 갈가마귀>, <공포의 외인구단>, <지옥의 링>, <사자여 새벽을 노래하라> 등으로 이어지는 복수와 탈주, 파멸 계보에 존재하며 이후 멀리는 <남벌>(1993)로 이어지는 이현세식 성인만화의 첫 번째 문이었다.” 박인하(2018) <이현세>, 커뮤니케이션북스, p.6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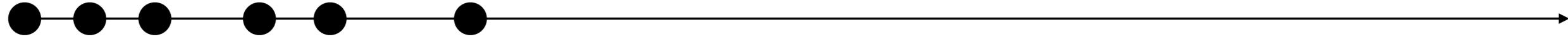
<아마게돈>(1989) <황금의 꽃>(1995)



SF도 여러 작품이 많지만 대표작은 <아이큐점프>에 연재를 한 <아마게돈>(1989)과 <미스터블루>에 연재를 한 <황금의 꽃>(1995)을 꼽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SF를 ‘과학(science fiction)’이 아니라 ‘사변물(speculative fiction)’로 확장하면 허구의 역사를 다루는 인기작품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1988년 7월 12일 <매주만화> 창간호부터 연재한 <머나먼 제국>이나 가상의 한일 전쟁을 다룬 <남벌>(1993)도 모두 SF로 구분할 수 있다.

“<아마게돈>의 독특함은 1987년의 오혜성이 2157년의 지구로 시간여행을 하다 차원의 벽을 넘어 26차원의 세계로 빠져들면서부터 시작된다. 오혜성은 그곳에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티탄족’과 마주한다. 24차원 에피소드에서는 노골적으로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만화 안으로 끌어 온다. 뿐만 아니다. 엘카의 인물들의 이름도 모두 신화에서 나온 이름이고, 감마 6666과의 싸움에서 조우한 이미지들도 역시 신화적이다. <아마게돈>은 그리스로마 신화에 상상력의 원천을 대고, 이를 다시 SF로 재해석하고, 거기에 다양한 SF 플리세를 끌어들이는 작품이다.(중략) 이현세는 SF와 신화(판타지)의 틀을 넘나들며 사랑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주인공들의 낭만적 사랑을 보여준다. 마치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어드벤처 소설과 펄프 로맨스를 행성으로 확장시킨 항성간 로맨스(Planetary romance)처럼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운 최후를 보여준다.” 박인하(2018) <이현세>, 커뮤니케이션북스, p.85.

다양한 혁신의 모색 : 좌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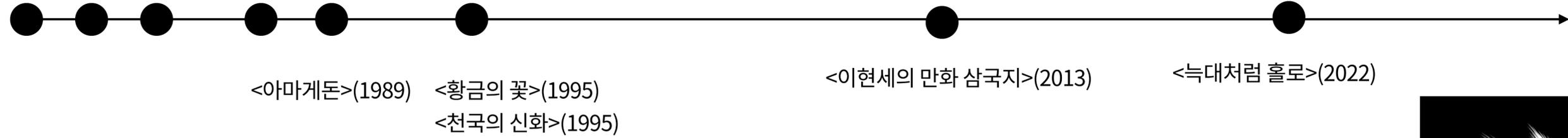


<아마게돈>(1989) <황금의 꽃>(1995)
<천국의 신화>(1995)

“이현세는 6년의 법정 투쟁 끝에 무죄가 되었지만, 100권 분량으로 준비되던 <천국의 신화>는 47권에 서 급하게 마무리되고 말았다. 이현세는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40대를 재판으로 보내보렸고, 그토록 열정을 쏟은 작품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말았다.” 박인하(2018) <이현세>, 커뮤니케이션북스, p.85.



다양한 혁신의 모색: 그래픽노블 / 웹툰



이현세는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다. 몇 편의 학습만화를 발표한 뒤,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적응한 만화로 나아갔다. 2013년도 완결해 발표한 <이현세의 만화 삼국지>(녹색지팡이)는 놀라운 만화다. 평생 흑백 페이지 만화를 하던 작가가 서구만화처럼 완벽한 회화적 연출을 선보인다. 림으로 더 많은 내용을 설명하고, 칸과 말풍선, 효과선 등은 그림에 방해되지 않게 최소화하 회화적 연출. 한국이나 일본 작가들은 영화적 연출이 익숙해 한 칸에 시선을 머무르게 하는 회화적 연출을 어려워한다. 한국적 그래픽 노블 등을 내세운 작품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완벽한 회화적 연출을 보여준 사례를 찾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웹툰 <늑대처럼 홀로>(2022)에서는 완벽한 스크롤 연출을 보여주었다. 2014년 레진에 연재한 <굿바이 썬더>(현재 네이버 시리즈에서 <누구라도 길을 잃는다>로 서비스 중)는 페이지 만화 연출과 출판만화 연출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7년이 지난 <늑대처럼 홀로>는 웹툰 네이티브처럼 연출을 끌고 갔다.

